

‘자연’ 화두로 들고온 설치작가 양혜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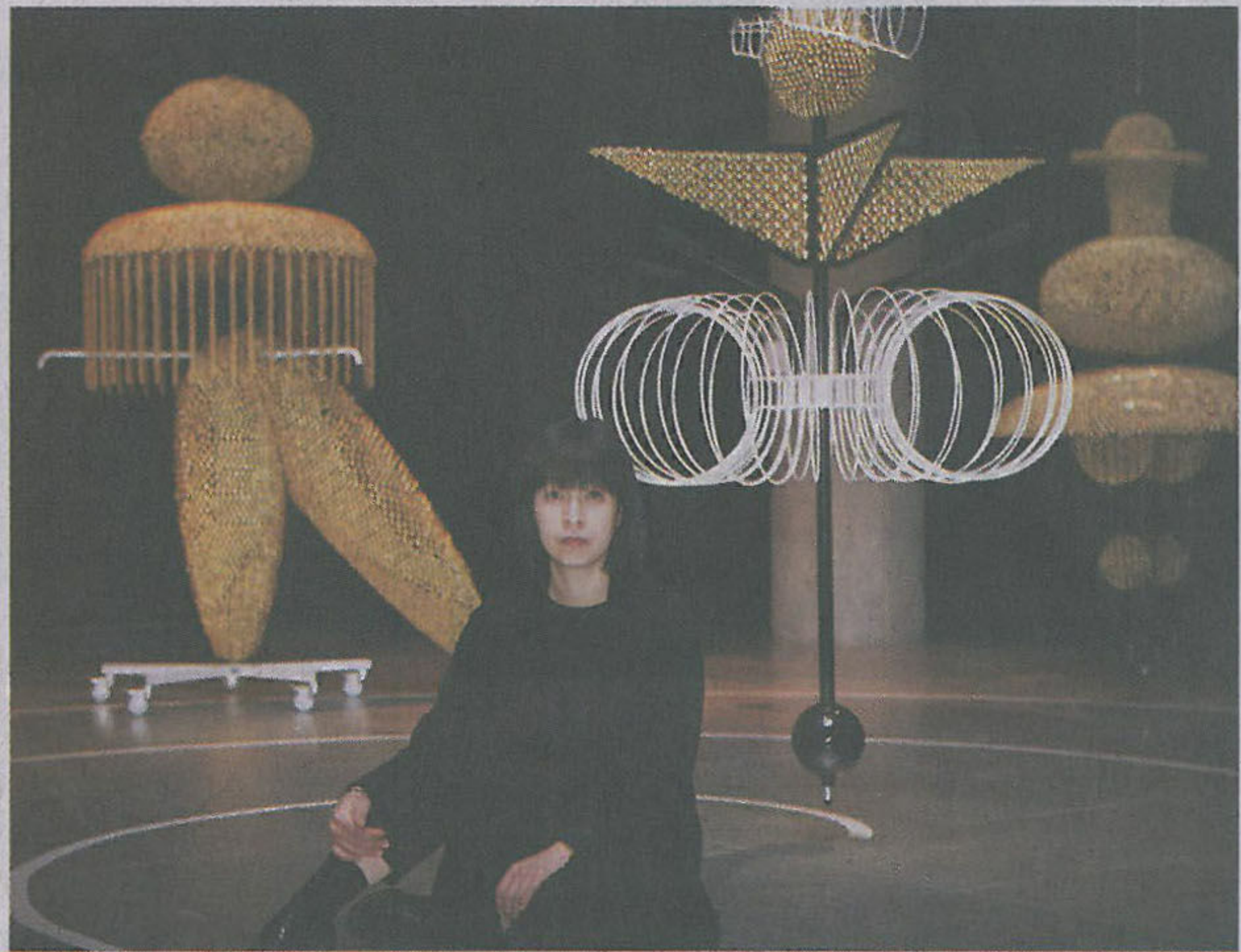
세계적 아트페어에서 스타덤
5년만의 첫 국내개인전
리움 ‘코끼리를 쏘다...’展
10여년간 작업한 35점 전시

금의환향이다. 전 세계 작가들의 ‘꿈의 무대’인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인전을 열기 위해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적절한 사자성어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2012년 서도호에 이어 한국 작가로는 두 번째로 리움에서 반(半) 회고전을 여는 설치미술가 양혜규(44) 얘기다. 국내 전시로는 5년 만이다. 21년 전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2009), 독일 카셀 도큐멘타(2012), 스위스 아트바젤 언리미티드(2014) 뿐 아니라 전 세계 우수 미술관과 아트페어에 초대되며 그 연배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경력으로 무장했다.

그가 리움 개인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코끼리(象)다. 전시 제목도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그러나 막상 전시장을 다 둘러봐도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작업은 없다. 그의 대표작인 블라인드와 옷걸이용 전선과 전구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를 걸어 놓은 ‘서울근성’, 초기 작품인 ‘창고 피스’(2004), 인공적인 지푸라기를 엮어 사원을 만든 신작 ‘중간유형’ 등 10여 년간 그의 작업이 압축 전시돼 있다.

코끼리는 근대와 제국주의로 사라져간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상징한다. 조지 오웰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한국 작가로는 두 번째로 개인전을 여는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리움>

의 1936년 자전 소설 ‘코끼리를 쏘다’ 속에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제국주의에 사살된다. 로맹 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는 어떤가. 주인공 모델의 상상 속 코끼리는 나치 치하를 딛고 인간다운 본성과 신념을 지키게 해 주는 자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시는 자연스럽게 근대와 제국주의로 사라져간 인간과 자연성의 복원에 무게를 둔다.

작가는 “제 연배에서 이런 큰 얘기를 꺼내는 것에 고민을 했는데 감히 시도를 했다”며 “쉽게 가는 분야가 많지만 나만이라도 어려운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공 짚풀로 만든 사원 ‘중간유형’은 인간의 신념이나 종교의 허위와 나약함을 보여 준다. 2011년 블라인드 대형 설치물 ‘성채’는 안팎의 경계가 모호하다. 일방성보다는 다양성, 시각에 초점을 둔 정형적인 조각보다는 청각과 촉각 등 인간의 오감을 일깨우는 공감각적 설치작도 그의 지향점을 잘 보여 준다. 전시장 곳곳에는 ‘사자춤’과 ‘방울’ 등 주술적 재료와 이미지가 강한데 예술이 가지는 상상력을 통해 상실된 것들을 신명나게 찾아보자는 일종의 의식이 아닐까 싶다. 전시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02) 2014~6901 이향휘 기자